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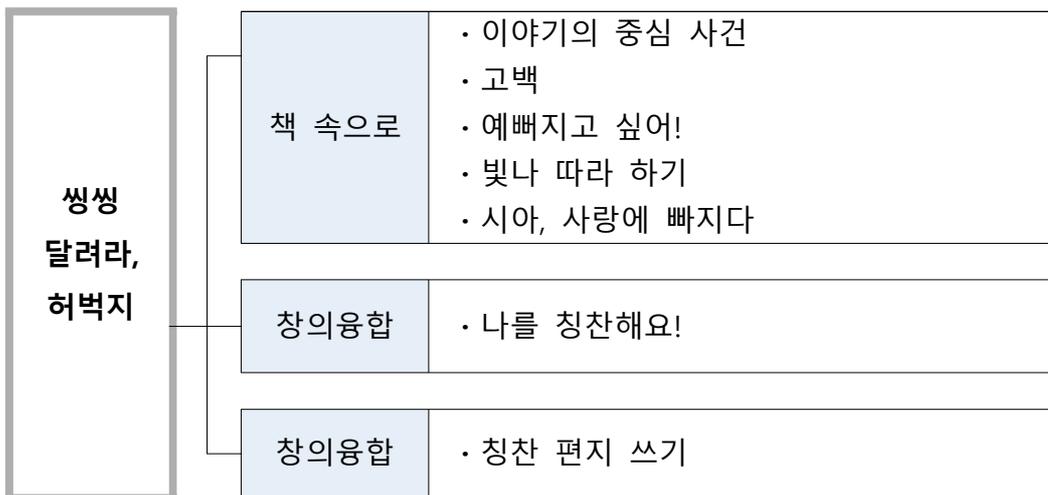
썩썩 달려라, 허벅지

- * 글 : 우성희
- * 그림 : 배민경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20쪽
- * 대상 : 초등학생

· 책 소개

시아와 영찬이는 유치원 때부터 붙어 다닌 단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영찬이가 분홍 머리핀을 시아에게 선물하자, 시아 가슴이 갑자기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시아는 그 일이 있는 뒤로 살도 빼고 싶고, 생전 안 입던 치마도 입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짝꿍 빛나가 하는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아의 튼실한 허벅지 때문인지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았지요. 하지만 얼음 위를 썩썩 달릴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시아는 피겨 스케이팅 대신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열심히 스피드 스케이팅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 덕분에 시아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게 되었답니다. 걸림돌 같았던 튼실한 허벅지가 시아의 모든 것을 바꾼 거예요. 도대체 시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 주요 독후활동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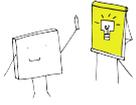
1. 『씹씹 달려라, 허벅지』의 표지를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 궁금한 점 등을 써 보세요.

2. 『씹씹 달려라, 허벅지』 뒷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어느 날 영찬이에게 분홍 머리핀을 선물 받은 시아는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살도 빼고 치마도 입고 싶어지고요.
빛나처럼 되고 싶어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했지만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네요.
어떡하죠?

우리 함께 시아의 고민 속으로 들어갈 볼까요?

- 1) 영찬이에게 분홍 머리핀을 선물 받은 시아는 왜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 2) 시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 3) 시아처럼 나도 요즘 고민이 있나요? 나의 요즘 최대 고민은 무엇인가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어휘 십자말풀이

1. 책 내용으로 이루어진 다음 십자말풀이를 해 보세요.

	②			⑤	④
		⑥			
①					
③			⑦		

가로 열쇠

① 빛나가 두 팔을 펼럭이며

□□□□ 뛰자, 영찬이가 빛나 옷에 묻은 떡볶이 소스를 손으로 털어 주었다.

*바람에 빠르고 가볍게 잇따라 나부끼는 소리. 또는 그 모양.

③ 빙상장에 들어선 시아는 □□을 질렀다.

*몹시 감탄하는 소리.

⑤ 목을 꼴꼴이 세우고 □□하게 서 있었다.

*잘난 체하여 주제넘게 거만하다.

⑥ 이번엔 □□□□ 말투로 짹 바뀌어 통화하는 빛나가 시아는 꼬리 아홉 달린 구미호로 보였다.

*코가 막혀서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태.

세로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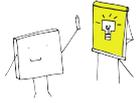
② 시아는 밤새 맘이 □□□□ 하다 잠이 들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

④ 시아는 할머니를 안고

□□□□ 잠이 들었다.

*잘 울리지 않는 물체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를 내다.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이야기의 중심 사건

1. 이 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해 봅시다. ㉑~㉔를 읽고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호를 나열하세요.

- ㉑ 영찬이가 시아에게 머리띠를 선물로 준다.
- ㉒ 시아는 피겨 스케이팅을 그만 두고, 스피드 스케이팅을 시작한다.
- ㉓ 빛나의 질투를 사기 위해 영찬이가 자기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걸 알게 된 시아는 화를 낸다.
- ㉔ 시아는 발표회에서 멋지게 스피드 스케이팅 실력을 보여 주고, 영찬이도 용서해 준다.
- ㉕ 시아는 자꾸만 영찬이 생각이 나서 두근거린다. 처음으로 치마와 반바지도 입고 학교에 간다.
- ㉖ 영찬이가 빛나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한다.
- ㉗ 시아는 빛나를 따라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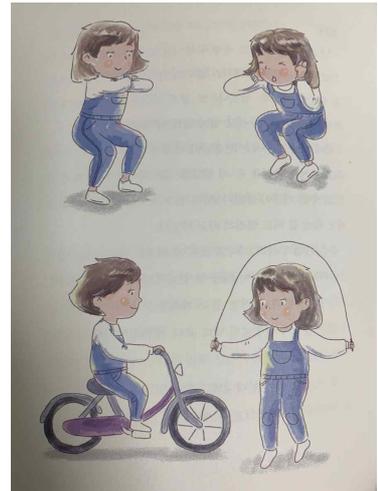
2. 이 책에 나온 다음 각 장면이 표현하는 이야기를 정리하여 써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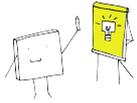
①



②



③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고백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다음 날 아침, 시아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였다. 책상 위에 선물이 또 놓여 있었다. 분홍 머리핀이었다. 시아는 재빨리 구영찬을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치려 하자 고개를 돌리는 걸 보니 구영찬이 분명했다.

그런데 육포 받을 때와는 느낌이 좀 달랐다. 마음속에 물결이 퍼지는 것 같았다.

얼굴이 빨개질까 봐 시아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야, 구영찬. 뭐 이딴 걸 주냐? 먹을 거나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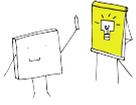
(나) ‘한번 입어 볼까? 에이, 좀 그렇다, ㅋㅋ. 구영찬, 좀 놀라겠지?’

치마를 입는 건 처음이었다. 치마를 입고 거울을 보니 불룩한 통나무에 천을 둘러놓은 것 같았다.

‘빛나는 예쁘기만 하던데. 그래도 내일 입고 가 볼까? 에이, 말까?’

시아는 밤새 맘이 오락가락하다 잠이 들었다.

1. 시아는 영찬이가 왜 자기에게 선물을 줬다고 생각했나요?
2. 시아는 왜 치마를 입었나요?
3.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내 모습을 바꾸어 본 경험이 있나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렇게 했나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예뻐지고 싶어!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시아는 빛나가 알미웠다. 하지만 부러웠다. 예쁘고, 날씬하고, 옷 태도 잘나는 빛나가 처음으로 부러웠다. 자꾸만 빛나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계속 영찬이 생각이 났다.

‘이왕이면 빛나처럼 예쁘면 좋겠지?’

시아는 집에 돌아와 선언했다.

“할머니, 나한테 밥 먹으라 하지 마. 이제부터 굶을 거니까.”

“아니, 시상에. 이게 뭘 날벼락 같은 소리여?”

(나) 이모가 사 준 레깅스는 허벅지에서 걸려 가랑이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밑에 떠 있었다. 시아는 숨을 들이쉬고 힘껏 잡아당겨 레깅스를 간신히 입은 다음, 스케이트를 신고 빙상장에 들어섰다.

“스케이트 날 부러지면 어쩌냐?”

빛나가 분홍빛으로 차려입고 나타나 비아냥거렸다.

“그러게, 나도 걱정했는데 안 부러지네.”

시아는 알미운 빛나 말을 받아치면서도 빛나가 예뻐서 자꾸 훑어보았다. 어깨너비부터 허리둘레 그리고 신발 크기까지 빛나는 예뻐다.

‘나도 빛나처럼 될 수 있을까?’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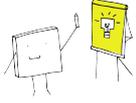
한 시간쯤 연습했더니 팔도 아프고 발목도 빠근했다. 그래도 참았다. 잘난 척하는

㉠□□(이)에게 예뻐진 모습을 보란 듯이 보여 주고 싶었다. 그보다 ㉡□□이에게 꼭 보여 주고 싶었다.

1. 시아처럼 나도 누군가와 나의 모습을 비교했던 경험이 있나요? 누구와 어떤 모습을 비교했나요?

2. (나)의 ㉠, ㉡ 에 들어갈 두 사람은 누구인가요? 왜 두 사람에게 예뻐진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까요?

㉠□□	㉡□□
- 6 -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빛나 따라 하기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헐, 발레 치마?”

남자아이들이 이마를 찼다.

“왜? 난 입으면 안 되니?”

시아는 빛나처럼 턱을 살짝 내밀고 눈을 내리깔고 발끝으로 걸으며 말했다.

“변시아 맞아?”

인우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변시아지, 그럼.”

시아는 빛나처럼 걷다가 빙그르르 돌아 치마 꽃도 만들었다.

“변시아, 빛나 따라 하나? 와하하, 빛나 짝퉁이네.”

아이들이 책상을 치며 웃어 댔다.

시아는 영찬이를 슬쩍 보았다. 영찬이도 웃다가 시아와 눈이 마주치자 탄성을 피웠다.

(나) “이거 받아. 어제 네가 갖고 싶어 했던 머리핀이야.”

“우아, 정말? 고마워.”

“빛나야, 나…… 너…… 조, 좋아해.”

“피, 거짓말. 넌 시아 좋아하잖아?”

“아냐. 4학년 올라왔을 때부터 널 좋아했어. 사실, 시아한테 준 선물,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거였어. 너 질투 나라 그랬던 거야.”

1. 빛나를 따라하지 않아도 시아에게는 충분히 장점이 있습니다. 시아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2. (나)에서 영찬이와 빛나의 이야기를 들은 시아의 마음이 어땠을 거 같나요?
3. 영찬이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영찬이의 어떤 행동이 시아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⑤ 시아, 사랑에 빠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연습할수록 시아는 스피드 스케이팅이 잘 맞는 옷처럼 편안해졌다. 더는 영찬이 생각도 끼어들지 않았다. 조금씩 속도가 붙으면서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는 것 같았다. 활주할 때는 날개를 펴고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가 된 느낌이었다.

“조상님, 저한테 우수한 허벅지 유전자를 물려주셔서 감사해요. 저, 변시아, 처음 인사드려요, 호호호.”

시아는 기쁨에 차 이런 인사까지 했다.

(나) “고마워, 시아야. 헤헤.”

“6년째 친구끼리 뭘. 사실 내가 고맙지. 네 덕에 나도 사랑에 빠졌거든.”

시아가 꿈꾸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뭐? 누구랑? 누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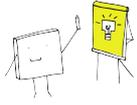
영찬이가 재촉하며 묻는데도 시아는 좀처럼 그 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시아는 스케이트를 타고 뽕뽕 달려 하늘을 훨훨 날아오르고 있었다.

1. (나)에서 시아는 누구와 사랑에 빠졌나요?

2. 시아는 자기 몸에 대한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빛나를 따라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을 때

3. 새로운 꿈을 갖고 도전하는 시아에게 응원 편지를 써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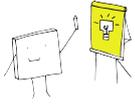


독서 후 창의융합_ 나를 칭찬해요!

1. 매일 나의 모습 중 한 가지를 골라 칭찬해 보세요. 특별하거나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잘했거나, 열심히 했던 일 등을 골라 나를 칭찬해 보세요.

날짜	칭찬할 일
*월 *일	(예시 답안) 방학인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했다.

2. 나를 칭찬하는 편지를 써 보세요.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p>1. 예) 표지에 있는 아이는 스케이트를 타는 건가? 예) 표정을 보니까 즐겁게 타고 있는 거 같아. 예) 왜 제목이 『씹씹 달려라, 허벅지』일까? 주인공의 허벅지가 튼튼해서 그런 걸까?</p> <p>2. 1) (예시 답안) 영찬이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두근거렸을 것 같다. 2) (예시 답안)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했는데, 실력이 늘지 않아 고민이다. 3) (예시 답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p>																														
3쪽	<p>1.</p> <table border="1" data-bbox="272 701 1219 1088"> <tr> <td></td> <td>② 오</td> <td></td> <td></td> <td>⑤ 도</td> <td>④ 도</td> </tr> <tr> <td></td> <td>락</td> <td></td> <td></td> <td></td> <td>닥</td> </tr> <tr> <td></td> <td>가</td> <td>⑥ 코</td> <td>맹</td> <td>맹</td> <td>이</td> </tr> <tr> <td>① 팔</td> <td>락</td> <td>팔</td> <td>락</td> <td></td> <td>다</td> </tr> <tr> <td>③ 탄</td> <td>성</td> <td></td> <td>⑦ 콧</td> <td>방</td> <td>귀</td> </tr> </table>		② 오			⑤ 도	④ 도		락				닥		가	⑥ 코	맹	맹	이	① 팔	락	팔	락		다	③ 탄	성		⑦ 콧	방	귀
	② 오			⑤ 도	④ 도																										
	락				닥																										
	가	⑥ 코	맹	맹	이																										
① 팔	락	팔	락		다																										
③ 탄	성		⑦ 콧	방	귀																										
4쪽	<p>1. ㉠-㉡-㉢-㉣-㉤-㉥-㉦</p> <p>2. ① 영찬이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시아는 원피스나 짧은 반바지를 입어보기 시작한다. ② 빛나를 따라 피겨 스케이팅을 시작한 시아는 생각대로 동작도 잘 되지 않고, 속상해 하다가 친구들 앞에서 방귀까지 뀌게 된다. ③ 시아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되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훈련을 한다.</p>																														
5쪽	<p>1. (예시 답안) 자기에게 관심이 있어서 선물을 줬다고 생각했다. 2. (예시 답안) 영찬이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치마를 입었다. 3. 예시 답안) 좋아하는 친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친구가 좋아한다고 했던 연예인처럼 스타일을 바꾸었던 적이 있다.</p>																														
6쪽	<p>1. (예시 답안) 언니는 날씬하고 예쁜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언니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했다. 2.</p> <table border="1" data-bbox="280 1704 1366 1899"> <tr> <td style="text-align: center;">㉠ 빛나</td> <td style="text-align: center;">㉡ 영찬</td> </tr> <tr> <td>⇒ 예시 답안) 자기를 무시하던 빛나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td> <td>⇒ 예시 답안)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영찬이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 주면 더 자기를 좋아하게 될 거 같았다.</td> </tr> </table>	㉠ 빛나	㉡ 영찬	⇒ 예시 답안) 자기를 무시하던 빛나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	⇒ 예시 답안)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영찬이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 주면 더 자기를 좋아하게 될 거 같았다.																										
㉠ 빛나	㉡ 영찬																														
⇒ 예시 답안) 자기를 무시하던 빛나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	⇒ 예시 답안)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영찬이에게 예쁜 모습을 보여 주면 더 자기를 좋아하게 될 거 같았다.																														

7쪽	<p>1. (예시 답안) 튼튼한 몸과 허벅지를 가졌다. 친구들의 말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고, 웃어넘길 줄 아는 넓은 마음도 가졌다.</p> <p>2. (예시 답안)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다.</p> <p>3. (예시 답안) 시아를 이용해서 빛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한 건 잘못된 행동이다. 누군가를 질투하게 만들기 위해 친구를 이용하는 건 정말 잘못했다. 내가 시아였어도 정말 화가 났을 거 같다.</p>				
8쪽	<p>1. 스케이트(스피드 스케이팅)</p> <p>2.</p> <table border="1" data-bbox="280 618 1378 815"> <thead> <tr> <th data-bbox="280 618 831 674">빛나를 따라했을 때</th> <th data-bbox="831 618 1378 674">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을 때</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0 674 831 815">⇒ 예시 답안) 빛나처럼 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고 슬퍼한다.</td> <td data-bbox="831 674 1378 815">⇒ 예시 답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내 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td> </tr> </tbody> </table> <p>3. (예시 답안) 시아에게, 새로운 꿈이 생긴 걸 축하해.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너만의 꿈을 찾은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나도 너처럼 멋진 꿈을 가질 날이 왔으면 좋겠어. 너도 응원해줘. 나도 너의 꿈을 응원할게! ***가</p>	빛나를 따라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을 때	⇒ 예시 답안) 빛나처럼 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고 슬퍼한다.	⇒ 예시 답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내 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빛나를 따라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았을 때				
⇒ 예시 답안) 빛나처럼 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고 슬퍼한다.	⇒ 예시 답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내 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9쪽	<p>1. (답안 생략)</p> <p>2. (예시 답안) ***에게 방학인데도 매일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널 칭찬해. 가끔 게임만 하고 싶은 날도 있는데, 잘 참고 공부하는 것도 잘하고 있어. 게으름 피우지 말자고 약속한 걸 스스로 잘 지키는 것도 대견하고. 방학 끝날 때까지 힘내자! 매일 조금씩 발전할 널 응원해. ***가</p>				